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 잔잔한 바다에 거친 풍랑 일으킨 것

부처님의 세상이고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무엇'은 분다 밝고 밝아서 신령스럽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서 이를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고 한다.

서산 스님은 계승으로써 부처님이나 노자, 공자도 '그 무엇'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런 성인들이 나온 자리를 합부로 중생들이 거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잘못 거론하다가가는 눈썹이 빠질 것이라고 했다.

예로부터 선문(禪門)에서는 진리를 잘못 거론하다가가는 눈썹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가귀감> 2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佛祖出世 無風起浪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세상에 나오신 건 바람 없는 큰 바다에 거친 풍랑 일으킨 것.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고 조사스님은 선종에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가섭 존자를 가리킨다. 우리는 보통 책바퀴처럼 돌고 도는 생사의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자비로운 큰마음으로 건져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요,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수행자의 눈을 단숨에 밝혀 주시는 분이 조사스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선가귀감> 2장에서는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잔잔한 바다에 쓸데없이 거친 풍파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꾸짖는다. 분다 이 세상은 평화롭고 조용하다는 것이다. 이 말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처님의 영역과 중생의 영역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경전이나 어록에서 부처님 세상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드러내며 '그 무엇'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근본자리에서 거론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중생들의 처지에 맞추어서 하는 이야기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나 조사스

근본자리서 보면 우리도 부처 분별망상 때문에 알지 못할 뿐

님의 근본자리란 1장에서 거론된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는 '그 무엇'에 해당된다. 중생의 영역이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사비 분별 속에서 늘 가려내는 일들을 말하니 육조 해능 스님의 '일물(一物)'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무엇'은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영역이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도 가르칠 수 없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영역이다. 그런 '그 무엇'의 자리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근본자리에서 보면 이 세상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완전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 중생이다'라는 표현을 하며 살고 있지만 근본을 알고 보면 우리도 분다 모두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다만 사비 분별하는 중생의 업 때문에 이 사실을 모

르고 있을 뿐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뜻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菩提樹下 初成正覺 歎曰 奇哉奇哉
一切衆生 皆有如來智慧德相 以分別妄想而不能證得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처음 성취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찬탄하며 말씀하셨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들이 다 여래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별망상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서산 스님은 모든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 '그 무엇의 자리에서 분다면 사람마다 분다 얼굴이 옷통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연지 찌고 분을 발라 줄 것을 기다릴 일이 뭐 있겠느냐?'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중생들의 얼굴은 그 자체로서 분다 부처님의 얼굴인데, 여기에다 다시 부처님의 얼굴을 만들겠다고 연지 찌고 분을 바를 필요가 왜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런 견해로 보면 부처님과 조사스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것도 잔잔한 바다에 거친 풍랑을 일으키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허공장경>에서 "글도 마구니의 업이요, 이름과 모양도 마구니의 업이요,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마구니의 업이냐" 한 것이 바로 이 뜻에서 한 말이다. 이는 바로 깨달음의 본분(本分)을 말하는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중생들의 일음일어를 가지고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자리에 와서는 천지가 뒤집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게 된다. 서산 스님께서는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乾坤失色 日月無光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원승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절 이름이 다양한 까닭은?

○○사(寺), △△암(庵), ○○정사(精舍), △△선원(禪院). 절 이름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 어떤 절에 이런 명칭들을 붙일까요? 우선 사(寺)자를 쓰게 된 연유부터 말씀드릴 아겠습니다. 원래 '사'는 중국 한나라 때 외국 사신을 맞이해 임시로 머물게 했던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다 인도의 마등과 법란 스님이 중국에 건너와 이 관청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사'란 표현이 일반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암, 정사, 선원 등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이후 유명한 산에 큰 절이 창건되고 이를 중심으로 작은 절이 하나 둘씩 세워지면서, '암' 또는 '암자'란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암자'는 본래 '마늘과 떨어진 곳에 나무와 풀로 엮어 만든 임시 집'이란 뜻입니다. 정사는 범어 비하라(vihara)의 번역어고, 선원은 큰 절 안에 있는 '별채'를 뜻하는데, 가령 해인사 같은 큰 절에 있는 강원, 율원, 선원 같은 것들이지요. 암자는 대체로 큰 절 인근에 있고, 선원은 큰 절 안에 있는 '별원'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사실상 이들 명칭은 큰 차이가 없이 일반적으로 사찰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됩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4강 해능의 돈교(2) : <금강경 구결>과 <육조단경>

선은 이름대면 불교의 사촌기적 각성에 해당한다. '밥 먹고 학교 가라는 임마의 말이 지겨워질 때쯤' 사촌기가 찾아온다는 어느 여중생의 말처럼, 불교가 오랜 세월 온축해온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갑갑해질 때쯤, 선이 태동되었다.

선은 정통 불교에서 보면 문제아들의 반란에 해당한다. 그들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여 교과서를 내팽개치고, 직지인심(直指人心)을 외치며, 학교를 떠나 삶의 현장과 대면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의적인 기행과 우상파괴, 의미를 따라잡기 힘든 '선문답'이 그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다.

선의 복음을 보여주는 대표구 하나를 인용한다.

돈황본 <육조단경>의 일절

(40) 志誠(誠)聞法, 言下便悟, 卽契本心. 起立卽禮拜. 自言. 和尚, 弟子從玉泉寺來. 秀師處不得(德)契悟. 聞和尚說, 便契本心. 和尚慈悲, 願當教(敎)示. 惠能大師曰, 汝從彼(彼)來, 應是細作. 志誠曰, 未說時即是, 說[及]了(不)即是. 六祖言, 煩惱即是菩提, 亦復如是.

(41) 大師謂志誠曰, 吾聞汝(與)禪師教人,

唯傳戒定慧, 汝(與)和尚教人戒定慧如何, 當爲吾說. 志誠(誠)曰, 秀和尚言戒定慧, 諸惡不作名爲戒, 諸善奉行名爲惠, 自淨其意名爲定. 此卽名爲戒定慧. 彼作如是說, 不知和尚所見如何. 惠能和尙答曰, 此說不可思議. 惠能所見又別. 志誠(誠)問, 何以別. 惠能答曰, 見有遲疾. 志誠(誠)請和尚說所見戒定慧. 大師言, [如]汝聽吾(悟)說, 看吾(悟)所見處, 心地無(礙)非自性(性)戒, 心地無(礙)是自性(性)定, 心地無(礙)自性(性)慧.

읽기 쉽게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성이 발백 일어나 절을 울리며 말했다. "저는 육전사에서 왔습니다. 신수(神秀) 스님 밑에서 안개 속에 헤매다가, 오늘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제 마음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해능(慧能)이 말했다. "신수가 보냈더니 너는 필시 스파이로구나." "사실을 숨겼을 때야 스파이겠지만, 털어놓았으니 이젠 아닙니다." 해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이치도 그와 같다."

해능(慧能)이 지성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듣자니 신수(神秀)는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만 가르친다는데,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더라." "제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찾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의 불순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 정, 혜 삼학을 수행하는 길이라고요." 해능이 말했다. "훌륭하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점진적 단계적이라면 나는 즉각적이며 종합적 방법을 제시한다. 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마음에 아무런 인유나



포교의 중심지는 달마가 주석하고 있던 승산의 소림사였다. 그런데 이 움직임에 하택(荷澤)의 신희(神會 670-762)가 제등을 걸고 나섰다. 732년 낙양 근처 개운사(開雲寺)의 공개토론회(無遮大會)에서, 신희는 수많은 승려와 학자들 앞에서 북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선의 정통은 남방의 해능에게 있다. 북종은 선의 방계일 뿐이다." 신희는 거두절미하고, 법통의 정표인 가사(袈裟)가 지금도 해

능의 파란을 거치면서 편집되고 유통되었다. 이 책이 아예 신희와 그 계열에서 정략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일찍이 중국의 근대 철학자 후쓰(胡適)는 '돈황의 발굴' 이후, 선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기업을 토론했다. 그러나 나는 이 종파적 투쟁이 <육조단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의 해석에 동의한다.

그는 변방의 오랑캐인데다가 일정한 교육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선의 정진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경전에 대한 지식도 없이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불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여기가 신수의 정진과 해능의 정진 사이를 갈라놓았다. 선의 역사는 이것을 북종(北宗)과 남종(南宗), 혹은 절교(敎)와 돈교(頓敎)로 구분한다.

신수의 절교는 계율과 선정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정화시켜 가라고 권한다. 이는 <법구경(法句經)>에 나오는 불교의 가르침, 즉 "여러 악한 업을 짓지 말고 못 착한 일을 해 나가라, 스스로 마음을 맑게 가라 앉힐지니,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니라(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心, 是諸佛敎)"와 같은 정신을 표명하고 있다. 신수는 이 길을 철저히 밀고나가 신비한 위광을 얻고, 이윽고 축천무후의 심복과 귀의를 얻기까지 했다.

그러나 해능은 전혀 달리 말한다. "너 자신이 곧 부처이다!"

그동안의 불교는 저쪽 언덕에 거룩한 부처들이 있고, 이런 언덕에서 한심한 내가 그분들을 경배하고, 그분들을 닮기 위해 길고 고된 수련을 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육조의 선은 이 절교(敎)의 발상을 일거에 뛰어넘었다. "다시 기억하라. 네가 곧 부처이다. 너를 하찮게 보는 사람들의 혀에 속지 마라!"

이 돈교(頓敎)의 선언으로 하여 그동안 불교를 구성하고 있던 수많은 코드들이 혹은 버려지고, 혹은 전혀 다른 얼굴로 재편되었다. 위에 인용한 '새로운 삼학(三學) 해석'도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돈교, "번뇌가 곧 깨달음!"



능의 처소인 조계(曹溪)에 현존한다고 강조했다.

신희는 여기 그치지 않고, 신희와 해능의 선 사이에 깊은 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선의 근본정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신희의 활약으로 북종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렸다. 이후 선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능의 남종이 주도해 나가게 된다. 현행본 <육조단경>은 이 같

돈교, 새 불교의 목소리

<육조단경>은 6조 해능이 창도한 선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책의 전반부는 특이하게도 그의 행적과 이력을 길고 상세하게 적어놓았다. 그런데, 그 안에 선의 정신이 '이미' 다 들어있다.

이 책은 편집부터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뒤로 사라져 버렸다. 이후 선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능의 남종이 주도해 나가게 된다. 현행본 <육조단경>은 이 같